

호전적 표현 언어공해 심각

군사문화 사라져야 한다 8

b.8

군사용어

‘밤송이도 까라면 까야지’ ‘꼬질대 나 갈 정도로 작살을 내고’ ‘손을 보아도 많이 보아야 돼’ ‘눈깔이 나올 만큼 해골이 복잡하다’ ‘나이롱 환자’ ‘원산폭격’ 등등.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쉽게 기억하는 말이다.

은유적인 장난기에도 반항적이고 냉소적이며 ‘해학’까지 담겨 있는 저속한 어감의 이런 용어는 엄정한 군령과 규율 아래에 있는 군대집단의 특수성에서 나오는 비·속어 또는 은어들이다.

군발이, 방발이(방위), 애로티시(학군단), 오성장군(병장), 모래무지(LMG), 연통(3.5인치 로켓포), 운장(운전병), 공팔(08·금품갈취) 등 군의 조직·병기 및 일상과 관련된 것이 다수이고 개념과 가치가 여과되지 않아 난폭하고 거친 감화성을 갖는 것이 특색이다.

그런데 군집단의 사회성과 특수성을 나타내는 이런 특수용어들이 어느덧 우리 규범어의 일상적 어휘체계와 문법구조 구성구석에까지 파고들어 사용자의 생각과 행동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쳐 언어생활을 황폐화시키고 인간관계를 살벌한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까라면 까라...”

사단·군단 등 군의 편성단위에서부터 원내사령관, 실탄(자금), 세몰이작전, 정면돌파, 지원사격, 일전불사, 윤단폭격, 미사일쏘, 대장정, 거포, 초토화 등 각종 군사용어가 정치·사회·체육분야에 많이 쓰이고, 죽기 살기식 싸움을 뜻하는 호전적 표현들이 일상용어에서 자주 나타난다.

살의를 느끼게 하는 ‘박살나다(흔나다)’, ‘피를 봤다(호되게 당했다)’, ‘단칼에 베다(응징하다)’, 등과 종말의식을 지닌 ‘끝내준다(좋다)’, ‘말살하다(없애다)’, ‘유탄을 맞았다’ 등이 이들 중 압권을 이룬다.

또 ‘포인트 간다(구두발로 정장이를 친다)’, ‘화이바 굴리다(머리를 쓰다)’, ‘색 쓴다(아침하다)’, ‘난다 진다’ ‘네손은 휴가갔다’ 등 군사적 어투에서 의역된 것들도 많다. 이런 조악한 신조어들이 우리 사회에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어 마구 쓰이고 있는 것이다.

군사용어는 일제군국주의, 한국전쟁, 5·16쿠데타, 5·17정변 등 수많은 격동기를 거치면서 다량으로 양산된 것으로 지적된다.

그중에서 일상언어에 군대용어의 혼입이 절정을 이룬 시기는 70~80년대로 파악되고 있다. 5·16쿠데타 이후 군출신 인사들이 정치·사회 각 분야의 중심위치로 대거 진출하면서 병영용어 대부분이 일반에 넓게 전파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여기에 국민개병제에 따라 적령기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무를 하면서 군문화 특성을 익힌 뒤 사회에 나와 이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반복과 누적의 통해 사회언어로 굳어졌다는 지적도 더해진다. 특히 군대에서 쓰이는 비속어·은어는 자아와 개인이 용납되지 않고 오로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사회의 권위와 살벌한 분위기 등에 반항하고자 하는 심리에서도 생겨난다.

따라서 그 표현이 장난기와 야유, 냉

쿠데타이후 일반에 급속히 확산 대학가 은어·행정용어와 뒤섞여

소, ‘신선감’까지 띠는데 군 내부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청년들의 날카로운 비판의식도 함께 담겨 있다.

이런 관계로 복학생을 주축으로 한 대학생들과 군대집단의 언어 사이에는 상당한 교류가 생기게 마련이고 두 집단간의 유행어는 상당히 긴 생명력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대학가에서 유행하는 것으로는 총학생회나 각종 궤기대회의 출정식·발대식에서부터 고문관(열외) 통째(수단) 찜(증명서) 공순이(여공) 깔순이(여자 애인) 땅개(육군) 검정개(경찰) 36도(이성의 육체) 로마군단(전투경찰) 개패(명찰) D데이(데이트날) 등 헤아릴 수 없다. 이외에도 ‘정치하다(아침하다)’, ‘별들에게 물어봐(나는 모른다)’, ‘식하다(먹다)’, ‘왓셈부리다(순결하다)’, ‘굴이 비다(아는 게 없다)’ 등 가치전도된 용어들이 일상적으로 통용된다. 이들 어휘를 사회속어와 혼용하는 학생들의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다.

교실에 ‘초전박살’ 구호

김철호(26·7대 사학과)씨는 “사물에 대한 거리낌없는 표현인 은어와 속어는 일반사회든 군대이든 그 조직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만화경”이라고 말한다. 김씨는 “대학가에서 이런 용어들이 풍미하는 것은 그 내용이 담고 있는 해학과 신선함, 야유·냉소·구체성

에 있다”며 “특히 군대속어는 조직의 경직성에서 나온 표현욕구의 통제 때문에 특색있게 마련인 ‘풍자언어’라는 점에서 그 재미가 더하다”고 덧붙인다.

‘딱같이·말뚱·낙하산’

대학가말고도 군사용어가 뚜렷하게 자리잡은 분야는 행정부다.

지시·하달에서부터 비상훈련소집, 보고, 시찰, 임시·긴급조치, 계엄 등 굵직한 행정용어와 각종 공문·게시문의 양식·문안이 군대용어로 되어 있다.

‘이를 어진 자는 수하(誰何·누구)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한다’는 조문이나 도로 게시판에 나붙은 ‘절대 진입금지’ 등 경고용어가 그것이다.

또 지난 90년 10월 노태우 대통령이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도 같은 범주인데 국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조치가 발표된 뒤 ‘입시전쟁’ ‘교통전쟁’이라는 새 전투용어가 뒤따랐고 그 뒤를 이어 일부 언론계 고교 3학년 교실에는 ‘초전박살’ ‘속전속결’ 등의 급훈이 걸리기도 했다. 후기대학 진학이나 재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전에 승기를 잡아야 한다는 격려성 표어였다.

이처럼 군용어가 행정분야에서 상위 용어로 자리매김하게 된 데는 군사정권이 들어선 뒤 30여년 동안 행정·외교분야의 고위직은 물론 국영·민간기업체의

중역을 맡아왔던 군출신 인사들과 정부 각 부처에 배치된 사관학교 출신 사무관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

군대식 발상인 수직성과 획일·목적주의를 추구하는 이들 예비역 관료들은 사무용어를 단순·간결화시킨 것은 말할 것 없고 일상대화에서도 병영언어를 그대로 반복했다. 이 때에 전파된 말들이 딱같이(비서), 강통(소식이 늦은 사람), 말뚱(장기복무), 졸자(하급직) 등이었고 ‘기름친다(뇌물을 쓰다)’, ‘약발이 먹힌다(효력이 있다)’, ‘찔빠당하다(꾸중을 듣다)’, ‘낙하산 탔다(백을 얻었다)’, ‘찔다’(상관·단속반 순찰) 등이 관청가의 인기있는 유행어가 됐다.

국민을 작전대상으로

이에 비해 우리의 사회일반에서 쓰이는 군사용어의 연원은 50~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군대에서 발상된 것을 일반 민중에서 차용해 쓰고 이것을 다시 병영에서 재차용해 쓰는 수레바퀴식 형태를 띤 것이 특징이다.

한국전쟁 뒤 널리 통용된 ‘야코 죽었다(기가 죽었다)’는 말의 야코는 서양인의 높은 코인 양코의 ‘이’가 탈락해서 변한 말이다. 또 60년대초 유행했던 ‘인생계급장(주름살)’은 국민들의 찌든 생활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군대계급장의 위세를 풍자한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미 해병대 구호가 그대로

직역된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란 표제는 아주 복잡한 정서를 담고 있다. 군복무를 마친 뒤에도 용맹과 불퇴전의 전우애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인데 군조직을 이상향으로 이 구호가 견인하는 뜻을 내포한 것이다.

10년 넘으면 굳어져

이런 현상에 대해 언어·한글 학자들은 언어타락과 국어오염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살벌하고 호전적이며 비민주적 요소를 지닌 군사용어와 ‘남용’에 따른 역기능으로 우선 국어의 순수성 훼손과 음운, 어휘, 문법체계 등 무의 혼란을 들고 있다.

또 언어가 사용자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 비추어 하위 언어의 일종인 군사조어를 확대 재생산하는 관료사회와 언론 등에 화살을 돌린다.

한글학자 조재수씨는 “군사용어 사용에 따른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한글학회 등이 〈쉬운말사전〉 〈행정용어 순화편람〉 등을 펴내고 있으나 아직도 관료층과 언론 등에서 표현의 강도 등을 높이기 위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인하대 김문창 교수(사회언어학)는 비·속어는 장난기 어린 표현이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 등으로 구사해 회화에 신선한 느낌을 주는 하나의 말놀이(언어의 유희)인데도 사용연령이 10년이 넘으면 표준말로 굳어지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라고 분석한다.

김 교수는 “군사용어의 투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언어개량사업에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며 “민간학회·협회 등이 자발적인 순화운동에 나서서 것과 함께 각급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언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영일 기자

